

「하늘창문」 소식지

Incheon Airport Facilities Corporation

발간일 2022. 9. 30. | 2022-3호

발행처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310호

편집처 경영기획그룹 기획예산팀

대외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1단계) 시설공사 VE경진대회”

공사는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1단계) 시설공사’라는 부제로 VE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공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졌으며 4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리 회사 소속팀(비행장사업소 박춘규팀, 이성호팀, 플랜트사업소 장재준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 VE경진대회 수상 모습

*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최저의 비용으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최우수상

수상한 “人”터뷰_비행장사업소 박춘규팀



Q. 안녕하세요?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참여인원은 총 자문위원 6명(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3명(플랜트사업소 장재준, 비행장사업소 박춘규, 이성호))과 매 과점마다 진행해주는 VE리더 직원 2명까지 총 8명이 한 팀씩 구성되어 VE 경진대회에 출전했습니다.

Q. 수상한 작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첨단 복합 항공단지 개발 1단계 시설공사 경진대회는 이미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효용성을 설계내용과 동등 이상으로 발휘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안 설계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설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공법 50여 가지를 제안했고, 그 중 25개 정도 채택이 되어 참가팀 중 가장 많은 비용절감액 약 190억원을 제안했습니다.

Q. 다음 경진대회 참가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이런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색다른 경험과 새로운 도전,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누구라도 한 번 참여하게 되면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수상자분께 인천공항시설관리(주)란?

A. 직원들의 역량과 기회,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고 뒷받침해주고 믿어주는 든든한 동료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스마트 인프라관리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공사는 인천공항 시설관리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인천공항 스마트 인프라관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공항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적용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스마트기술 적용’을 주제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회사 김석준팀(기계그룹 열원사업소)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신승주팀(전기그룹 전력운영사업소)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인프라관리 공모전 수상 모습

최우수상

수상한 “人”터뷰_열원사업소 김석준팀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열원사업소 동력B팀에서 팀장 직책으로 근무하는 김석준 차장입니다. 올해로 20년째 인천공항에 재직중입니다. 20대에 들어와 어느덧 40대의 가장이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Q.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저는 항상 유지보수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원사업소 동력B팀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힘들고 어려운 문제해결을 해보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 수상한 작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작품이라 말하기 부끄럽네요. 인천공항 스마트 인프라관리 아이디어 제안으로 제목은 “인천공항 부대건물 유틸리티 자동원격점검시스템 운용 제안”입니다. 2021년 3월 부서이동으로 동력B팀에 왔을 때 상수,중수,중온수 등 유틸리티의 점검업무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팀원들을 위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무언가를 찾다가 조달청 나라장터 소품물의 원격점검시스템 단말기를 접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Q. 다음 공모전 참가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문제들이 보입니다. IoT,메타버스 등 활용 가능한 미래가 인천공항에도 있습니다. 같이 움직여 우리 회사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세요.

Q. 수상자분께 인천공항시설관리(주)란?

A. 저의 미래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미래를 만들어 오래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인천공항 생산성 혁신 경진대회”

공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생산성 혁신 경진대회를 시행했습니다. 경진대회 공모주제는 ‘IT, 로봇 신기술 접목 및 공항시설 혁신 또는 인천공항 운영체계 효율화’였으며, 공사 및 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리회사 공용여객사업소에서 우수상을, 공항통신사업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 생산성 혁신 경진대회 수상 모습

우수상

수상한 “人”터뷰_공용여객사업소 이명준팀



Q. 안녕하세요?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공용여객사업소 시스템운영팀 이명준입니다. 우리팀은 이승준, 이명준, 신보섭 외 10명(총 13명)입니다.

Q.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WoL 기능을 통한 단말전환 관리개선’이라는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사의 업데이트 자동배포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꺼져있는 전원을 원격으로 작동시키는 Wake On Lane(WoL) 도입을 검토했고 성공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전원을 켤 수 있는 기능입니다.

Q. 다음 경진대회 참가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공모전 준비를 하다보니 텍스트로만 쓰는 건 어렵지 않는데 PPT 작업, 발표준비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고비를 넘기시면 좋은 수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수상자분께 인천공항시설관리(주)란?

A.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인천공항에 꼭 필요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저도 인천공항시설관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OU 체결

“바탐공항과 공용체크인시스템 구축 맞손”

우리 회사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바탐 항남 공항의 바탐공항(주)(PT BIB)와 공용체크인시스템 구축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탐공항(주)의 피크리 알람 쿠르니안사야 사장을 비롯하여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용체크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 사 자료 및 정보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통해 “이번 협약이 공사와 자회사의 해외공항 공동진출의 첫 시작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공항시설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능력을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바탐 공항(주) MOU 협약 체결 모습

창립 5주년 기념 행사

“인천공항시설관리 5주년 생일을 맞아..”

우리 회사는 지난 9월 13일 제2합동청사 CS아카데미 1강의장에서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창립기념식에는 자회사 임원들과 노동조합 교섭 대표노조를 비롯해 5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5주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날 사장님께서는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온 임직원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지난 5년이 안정과 정착의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도약과 발전의 시간이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로 창립 5주년 기념 추첨 Event가 진행됐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100명의 직원이 선정되어 글램핑 또는 카바인 1박 이용 혜택을 얻게 됐습니다.



▲ 창립 5주년 기념 행사 단체사진 촬영 모습

직원 기고

하늘창문 소식지 직원참여 공모 중 '세대간 소통의 필요'라는 주제를 담고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고명 : 대화가 필요해!

T1수하물사업소 이현종님

요즘 세대의 사회생활은 중년이나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형태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세대,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기성세대인들이 이해하고 따라가기 바쁘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 5차산업혁명 시대도 벌써 흘러나오니 참으로 빠른 변화는 빛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신·구 세대가 함께 살아가다보니 상호 이해충돌과 소통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느끼곤 합니다. 기성세대는 예전에 이랬는데 하면서 고집을 부리며, 어린애들이라 칭하며 정말 싸가지 없다고들 하곤 하지요.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꼰대라고하며 실력도 없으면서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구식을 자꾸 강요 하나요’하며 상호 의견 충돌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본다면 상호 조금씩 각 세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소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글을 적어 봅니다.

우리회사 Q&A

퇴직금의 전반적인 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퇴직 정책을 전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시스템사업소 임정균님**

Q1. 현재 퇴직금의 운용은 DB/DC형으로 구분되는데 직원 대부분은 DB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정 금융사 몇 곳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금융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A1. 우리 회사는 2019년 1월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 (DB형/DC형)를 도입하였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하여 평가, 선정하였으며 현재 DB 퇴직연금사업자 4개, DC 퇴직연금사업자 6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DB : 신한은행, 국민은행, 삼성증권, 삼성생명
DC : 신한은행, 국민은행, 삼성증권, 삼성생명, NH투자증권, KEB하나은행

Q2. DC형 변경 절차와 변경 시 발생 되는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2. 퇴직연금제도 변경을 희망하는 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 제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양식 및 절차 : 계산관 → 공지사향 → 417번 계사글 참고

DC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매년 말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 직접 투자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용수익(손실)을 함께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법적 사유내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설명회 교육자료 : 계산관 → 공지사향 → 399번 계사글 참고

‘알림’ <예비군 훈련>

“2022년 하반기부터 예비군훈련 시작”

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간 중단된 예비군 소집훈련이 8월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22년 한해 한정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하여 실시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훈련장소는 제507보병여단 47대대에서 1일 약 400명이 참석하여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인 예비군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직원 약 150여명 예비군들이 개인별 부여된 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현역부대 교관/조교들로부터 좋은 이미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벌써 동미참훈련은 9월 2일 부 종료되었고 동원훈련(지속)은 동원지정 현역부대에서 소집하여 훈련 중이며, 기본훈련은 9월 15일 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이후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대원분들은 계획된 훈련일정에 정상 입소하시고 안전하게 퇴소하시길 바랍니다.

※ 예비군중대 : 032-743-3878 / 3879

구 분	9 ~ 10월	11월 이후
종 류	기본훈련 / 간부 동미참훈련 등	이월훈련 / 미응소자 훈련



코로나-19 검사

입소자 확인

사격훈련

※ 위치 : 남동구예비군훈련장

N행시 장인들 모여라!

소 : 소식지의 내용들이

식 : 식상하고 늘 비슷한 내용들 같지만

지 :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주는 하늘 창문 소식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려요~

T1수하물사업소 이진화님

한 : 한가득 풍성한 추석 명절에 밤하늘에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가 : 가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가득 하지만

위 : 위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부모님, 형제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둥근 보름달에 전해 봅니다.

동화환경사업소 김진우님